시 론

역사의 시기마다 국민은 매번 이겼다

오 주 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중요한 것은 공감 능력

소통(疏通)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의견이나 의사가 막힘 없이 잘 통하다."이다. 소통에 있어 '서로'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말하는 것, 즉 일방이 아니라 쌍방향이라는 의미다. 쌍방향이 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바로 공감능력(共感能力)이다. 공감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말을 귀담아 잘 들어주는 것'이다.

격노=봉건적 리더십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따라서 인간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협력, 소통이 필수적이다. 국가와 국민들에게 지대(至大)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인의 리더십은 그래서 특히 중요하다. 대통령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대통령이 격노(激怒)했다는 기사가 나올 때 마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박정희, 전두환 등 쿠데타와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군사독재정권의 수장들이다. 조직의 리더가 되었을 때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격노하는 사람들은 대개 봉건적 리더십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봉건적 리더십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잘 개진할 수 있을까? 사안에 따라 어쩌다 한번은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 두 번 이상 하다간 대개 내쳐지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아부꾼과 충성파들만 남게 된다. 그 틀에 점점 갇히다 보면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되고, 급기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된다. 이번 비상계엄처럼 말이다.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고서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남 탓을 하며 궤변과 요설로 회피하기에 급급하다. 적반하장(賊反荷杖)격으로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강변(强辯)하는 것을 넘어서 급기야 역공(逆攻)을 하고 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존경심에 바탕 둔 원칙중심의 리더십 필요

존경심에 바탕을 둔 원칙중심의 리더십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흔히 한다. 정말 그럴까? 감당할 수 있는 자리면 자리가 사람을 만들 수 있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갔을 때는 자칫하면 자신도, 조직도 망칠 수 있다. 국회의 탄핵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者의 사례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환경의 지배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평소 다양한 분야의 사람과 소통하고, 경험을 해야 좋은 학습효과가 만들어진다. 특정한 조직과 틀 안에 갇혀 끼리끼리만 살아온 사람들이 공고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단체와, 회사, 지역, 그리고 나라를 어떻게 망쳤는지 익히 봐왔다. 특히 이번 내란사태의 반역자 무리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 또렷하게 직시하고 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자

어려서부터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앞장 서지 마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다. 우리 사회는 모난 돌이 되어 정을 맞고, 앞장선 사람들 덕분에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유지해 왔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가까이에서 벌어지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일부터 '아니다'라고 더욱 크게 외치자. 그래야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지 못한다.

역사의 시기마다 국민은 매번 이겼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동교동 자택을 방문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의 면담에서 "촛불시위 때 자발적으로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이런 국민 앞에서 민주주의 안하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국민 앞에서 어떻게 독재가 있을 수 있겠나. 일시적 반동은 있겠지만 절대 후퇴는 없다. 국민을 이기고 독재할 사람은 누구도 없다. 강권 정치를 하는 사람은 자신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와 다르다는 착각도 한다. 국민은 역사마다 독재정권을 좌절시켰고, 매번 이겼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대한민국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안위와 권력 유지에만 급급하고 있다. 뻔뻔함이 도를 넘어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결국 자승자박(自繩自縛)할 것이다. 내란의 무리들이여! 반역의 무리들이여! 헌법 제1조를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문화난장

새해엔 카르페 디엠을

최 래 오
들꽃작은도서관장

곧 새로운 한해가 시작된다. 아쉬움과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한다. 청소년기에는 배우면서 꿈을 꾸는 시기다. 결혼해서는 자식들을 키우고 가족을 이끌기 위해서 산다. 수십 년을 절약하며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우리네 인생이다. 퇴직을 하고서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를 위한 인생이 시작됐다. 이순에 이르러 나를 위해서 살아도 되는 시기가 됐다.

대학 1학년 때 비상계엄과 1980년 5·18 비상계엄을 경험했다. 그리고 지난 3일에 또 상상도 못한 비상계엄을 다시 겪게 됐다. 길 위에 쏟아져 나온 시민들의 강인한 항쟁을 보았다. 1980년에 죽은 자들이 2024년 산자들을 구했다. 역사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축적된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완성돼 가는 것을 확인한다. 그렇게 정치적, 경제적 격변기에 열심히 살고 보니 지금의 내가 서 있다.

불혹의 나이에는 정체성에 대한 갈등이 심했다. 거기서 탈출하기 위해 홀로 유럽 여행을 떠났다. 처음으로 타는 비행기였다. 외국여행을 하면서 산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유로운 삶을 보게 됐다. 우리는 산 위에 사는 것은 달동네라 부르는데 유럽은 달랐다. 산에서 사는 삶이 가난이 아니라 낭만과 여유로움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유럽 여행은 내 인생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됐다. 충격이었다. 그 이후 어떤 어려운 여건에서도 여유로움과 멋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하여 지금의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다. 여행에서 꿈꾸었던 시골 산위에서 사는 삶을 위해서 20년 전에 땅을 구입하고 12평 집을 지어 10년째 살아가고 있는 것도 그것이다. 세월이 지나가 이순을 넘긴지가 오래됐다. 이제 또 다른 꿈을 찾으며 순간을 즐기고 있다. 지금의 노년이 좋다. 지붕 기와 틈 사이에 들어와 세들어 사는 참새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부스럭거리는 소리마저 같은 마음인가 싶어 소음이 아니라 정겹게 들린다.

그동안의 생활들이 하나씩 정리돼 간다. 정리해야 할 두려움과 욕망에 대한 대처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영양섭취와 운동을 한다.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잎새가 바람에 떨어져 낙엽으로 굴러가듯이 주어진 수명이 다 되면 그대로 지면 된다. 단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산소기를 꽂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의 나를 단단하게 한다.

세상에서 제일 공평한 것은 죽음이다.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겸손한 생각으로 오래 사는 것보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찾으면 된다. 젊음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나이듦의 욕망은 소박해진다. 사회생활에서의 지위는 경제적인 힘에 의해 좌우되기에 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한다. 수 십년의 노력으로 집 한 채를 마련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한다. 퇴직 후 노년은 주어진 것에서 만족을 찾아야한다. 가벼운 욕망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주위를 돌아보면 내 욕망을 부추기기 위해서 모든 것이 춤을 춘다. TV에서는 나를 유혹하는 광고로 가득차 있다. 주위의 많은 욕망을 이해하고 나를 유혹하는 욕망에 절제한다.

호화로운 술자리도 좋지만 멋있는 벗과 나누는 한잔 술을 즐기며 벗이 바쁘면 혼술로 취기를 느끼면 된다. 심심하면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커피 한잔 시켜놓고 사람구경도 하면서 독서와 사색을 즐기면 된다. 여유있으면 낯선 곳으로 설레이는 여행을 떠나면 된다. 퇴직하면서 모두가 걱정하는 것은 돈이다. 돈 때문에 살아온 삶이기에 모든 게 돈에 달려있다 생각한다. 돈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일뿐이다.

돈 보다는 마인드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에서 나름대로 즐거움을 찾으면 된다. 김치 한조각에 막걸리 한잔으로 취기를 즐기면 된다. 분위기 좋은 카페도 좋지만 주변에 널려있는 자연 속에서 준비한 차 한잔은 어떠한가. 살아있음이 좋다. 그 좋은 세상을 어떻게 즐겨야 할지는 나에게 달려있다. 카르페 디엠(Carpe Diem), 현재를 즐기면 된다. 다가오는 인연을 이어가며 좋은 만남을 찾아 나선다. 새해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이 많은 노년을 즐기고 싶다.

독자투고

연말연시 청소년 탈선 예방에 관심 기울여야 할 때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은 송년회 등 각종 모임에 참석하거나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지인들을 만나 그간의 안부를 물으며 술잔을 나누는 등 들뜬 분위기 속에서 보내기 쉽다.

그로 인해 정작 관심이 필요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평소보다 신경을 써주지 못하거나 고민거리 또는 심경변화 등을 알아채는데 소홀해지기 쉽다. 또한 청소년들이 곧 다가올 겨울 방학기간 동안 연말 분위기에 편승해 어른들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유흥가를 배회하다 각종 범죄에 노출되거나 음주 흡연 등의 비행을 저지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비해 경찰은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 등을 통한 청소년 비행예방 및 선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은 유흥가를 중심으로 한 야간 거리 순찰을 실시해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을 점검하고 있으며 117 CHAT(채팅신고 앱) 등 학교폭력 근절 홍보활동과 함께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찰활동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가정을 소홀히 해 정작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친구·지인들과의 송년회 등 만남을 간소화 하고 가족 구성원들과의 여행 및 취미활동에 나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연말연시는 술잔을 기울일 때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기울일 때다. 〈김만중·장흥경찰서 관산파출소〉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찾아와 머무는 생활인구 확대에 올인해야 할 전남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남도가 생활인구 확대 시책에 올인하고 있다. '사랑애(愛)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만원 세컨하우스', '전남에서 살아보기' 등이 대표적이다. 강진군은 관광 비용의 절반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누구나 반값 여행'을 통해 올해 11월 현재 267만명을 유치했다. 지난해 동기(213만명) 대비 25% 증가한 수치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생활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었다. 전체 인구가 2004년 200만명 선이 깨진 데 이어, 2017년 190만명, 올해 3월 180만명까지 붕괴됐다. 2020년 12월 이후 47개월 연속 반등 없이 줄어드는 흐름이 굳어지고 있다. 관광·워케이션 등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생활인구가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실제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분석에서도 인구감소 지역 전체 소비 절반을 방문자들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키로 하면서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는 지적에도 전국 지자체 간 경쟁이 불붙고 있다. 결국 얼마나 차별화된 정책을 펼치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도 체류형 관광 등을 통한 생활인구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때다. 더구나 전남은 전국에서 소멸위험이 가장 큰 곳으로 꼽힌다. 초고령화사회도 가장 빠르게 도래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저출생 극복과 마찬가지로 지방소멸 대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자연인구는 현실적으로 단기간 증가가 불가능하고, 학업과 취업으로 청년층 유출이 심각하다.

국민적 관심을 끄는 한편으로 인구 이동성을 반영한 유인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자연 자원뿐 아니라 특화 대학, 산업 등 전방위적으로 연계해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계속 머물거나 재방문 또는 정주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계 맺기를 강화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생활인구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하겠다. 내년 상반기에 수립할 종합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지역의 미래가 달렸다.

전국 유행 독감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백신

독감이 기승이다.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병원마다 환자가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내과, 소아과 등에는 긴 대기줄이 생겨났다. 예방백신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개인위생 수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8도 이상 갑작스러운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의사환자 수는 12월 2주차(50주·12월 8일-14일) 1천명당 13.6명으로, 유행 기준(8.6명)을 초과하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은 1천명당 19.4명으로,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전남은 7.0명으로 낮은 수준인데, 점차 늘고 있어 안심하기 이르다. 독감은 사회활동이 많은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시 의심 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므로,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초기에 적극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

광주시, 전남도는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최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형(A형)과 이번 절기 백신주가 매우 유사해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합병증 등 중증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집단 생활하는 소아청소년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후 6개월에서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은 무료여서 비용 부담도 없다. 동절기 유행이 길어질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별 위생에도 철저해야 한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규칙적 실내 환기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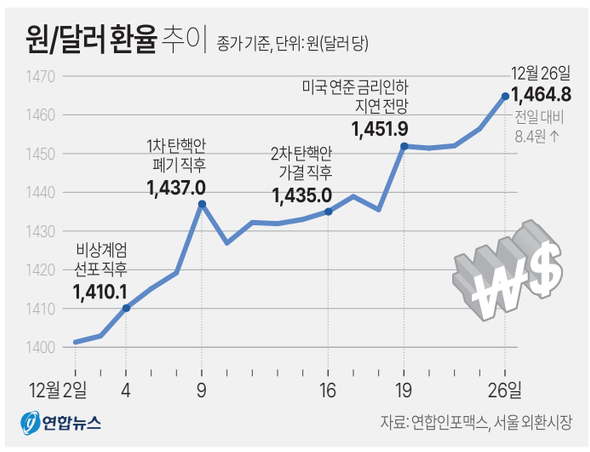
급성호흡기질환이다. 고열과 기침 등에는 방치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검사하고 치료받길 바란다. 당국도 조기에 동이 날 수 있는 백신을 충분히 확보, 공급해야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부 환자들은 코로나19보다 더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픽 뉴스

환율, 금융위기 후 첫 1,460원대 마감…8.4원 뛴 1,464.8원

원/달러 환율이 26일 또 올라 외환위기 이후 처음 주간(낮 시간대) 거래 종가가 1,460원을 넘어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주간 거래에서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전 거래일보다 8.4원 뛴 1,464.8원에 장을 마쳤다.

주간 거래 종가가 1,460원선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15년 9개월만에 처음이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원 내린 1,455.2원으로 출발했으나 바로 반등한 뒤 상승 폭을 키워 오후 3시 20분 1,466.0원까지 뛰었다. 장 중 고가 기준으로는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최고치다. 환율은 지난 24일 야간 거래에서 1,460원을 넘는 등 2거래일 연속 1,460원을 웃돌았다. 연말을 맞아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다.



달러는 최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치 상향과 '트럼프 2기' 경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주 108대로 올라선 이후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30분에는 108.145를 기록했다. 국내 정국 불안 장기화도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정치부 650-2030, 경제부 650-2050, 사회부 650-2040, 문체부 650-2065, 지역특집부 650-2060, 사진부 650-2080, 논설실 650-2006, TV본부 650-2009, 서울지사(02) 786-9488
광고 문의 650-2099, 마케팅본부 650-2070, 경영지원국 650-2011,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